

지방선거 코앞 ... 선거 사무원 구하려 '발 동동'



▲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밀도는 박한 일당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 사무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상황실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 사무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한때는 단기간에 짝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선거 알바'로 각광 받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밀도는 박한 일당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법으로 정해진 일당에 웃돈을 얹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거사무원들은 이른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10~12시간 선거운동에 나선다. 활동은 고되지만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수당 3만원, 실비 2만원 등 5만원이다. 식비 2만원을 포함해도 7만원을 넘을 수 없다.

선거사무원의 최대 일당인 7만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0시간 일할 때는

7천원, 12시간은 5천833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밀둔다. 식비를 제외한 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과 격차는 더 크다.

선거사무원 일당은 2014년 지방선거와 같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면서 4년 전보다 44.5%가 올랐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영농철과 겹치면서 선거사무원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지역 품삯은 점심과 간식 등을 따로 챙겨주는 조건으로 남자 10만원, 여자 7만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다 선거사무원의 수요가 많다. 선거법상 수 있는 선거사무원은 중복지사 후보의 경우 167명, 시장·군수 후보는 읍·면·동수의 3배수, 도의원 후보는 10명, 시·군의원 후보는 8명이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끝날 줄 모르는 '개고기 논쟁'

'반려동물 1,000만'대를 맞아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의 골만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간 접수된 민원 중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식용 반대'가 최다 민원으로 1,027건이 접수됐다.

17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국육견단체협의회(육견협) 회원 300여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 철장에 갇힌 개들을 신고 나타났다. 국회의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기 위해 '육견(식용견)'을 신고와 집회를 연 것이다.

육견협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를 무허가 축사로 규정하는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 개 사육 농민 150만 명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고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결국 이들의 핵심 주장은 식용견 사육을 합법화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맞불 집회를 연 동물권단체 회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60대 여성 참가자가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처럼 식용견 갈등이 계속되자 이전 정부가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용견 문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해묵은 갈등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반려견 인구와 맞물려 갈수록 갈등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이 반려동물 사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1,952만 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가 총 874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7년엔 반려동물이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육견협과 동물보호단체 모두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농가의 현대화, 기업화를 위해서라도 개식용을 위한 사육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산업으로서의 개식용이 다른 축산업처럼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 개사육을 불법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육견협 등 육견단체가 식용견 합법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데 이어 동물권단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동물보호 정책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식용견을 둘러싼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지속될 전망이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